| 불자 세상보기 |

인터넷 시대의 새로운 口業



선업 스님
통담아카데미아 원장

뜨거웠던 '204번 버스' 게시글
살펴보니 기사 잘못은 없었다
게시자가 양념쳐서 글 게재해

'바르지 않은 사유'로 생긴 일
욕망·화·폭력 연쇄 고리 만들어
현상 좇으며 구업 적립할텐가

"사랑스런 말로 섭수해야 한다"
선플과 정플로 세상을 정화하자

요즘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로 인해 생긴 부정적 파장으로 세상이 시끄럽다.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을 구업(口業)의 한 형태로 본다면 결국 신종 구업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204번 버스 논란이다.

한 아이의 어머니가 잠시 딴청을 피는 동안 아이가 버스에서 혼자 내린 일에 대해 한 네티즌이 버스 기사가 어머니가 울며 이야기하는 데도 그냥 버스를 출발시켰다고 글을 올려서 문제가 확산되었고, 이 글에 네티즌들이 공분하여 버스 기사는 졸지에 죽일 놈이 된 경우이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 버스 기사는 적절한 조치를 했고, 문제는 게시글을 올린 사람이 자신이 보고 느낀 바에 양념을 조금 더 첨부해서 글을 올리다 보니 사실과 다른 상황이 연출되어버린 것이다.

부처님은 이런 경우를 '바르지 않은 사유'로 생긴 일이라고 진단한다. '바르지 않은 사유'는 마음에 좋지 않은 새 세 마리가 차례로 날아드는 것으로 비유된다. 그 새들로 인해 좋지 않은 언어가 자동으로 준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첫 번째 새의 이름은 '감각적 욕망'이다. 문제의 게시글을 올린 이는 "이렇게 보태어 이야기하면 훨씬 자극적이고, 사람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거야"라는 사욕에 사로잡혀 사실보다는 보고 싶은 대로 본 욕망의 새를 마음에 불러들인 것이다.

두 번째 새의 이름은 '화냄'이다. 공분이란 '대중들이 다 같이 느끼는 분개'를 뜻하기도 하고 '공적인 일에 대하여 느끼는 분개'를 뜻하기도 하는데,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이야기에 사로 잡혀 '성냄'의 새를 마음에 불러 일으켜 단체로 눈이 멀어버렸다.

특히 보호받아야 할 아이와 그 보호자인 엄마라는 대목에서 대중들은 '지금의 분노는 의로운 분노'라는 인식 오류가 낳은 감정적 함정에 빠지고 만 것이다. 대중의 선의가 눈먼 쥐를 따라간 꼴이 된 것이다.

세 번째 새의 이름은 '해코지'이다. 분노한 대중들 중 일부는 204번 해당 기사를 해임해달라고 청와대 홈피에 민원까지 넣었다. 화를 넘어 상대에 위해를 가하는 '해코지'의 단계로 넘어간 것이다. 상상을 가미한 꾸민 이야기가 문제적 사유의 끝판왕격인 '사람을 해치는 폭력 유발의 새'를 마음에 불러들인 것이다.

이 세 단계를 거치는 사이에 구업을 구성하는 동반자들이 등장한다. 도리에 어긋나며 교묘하게 꾸며대는 말인 기어는 문제적 게시글을 올린 이가 처음에 사용한 것이다. 이어서 대중들은 독한 악담을 담아 댓글로 도배하기 시작한다. 뒤이어 진실과는 거리가 먼 망령된 망어들이 세상을 덮어 사회는 구업의 천라지망이 되고 피해자의 상처는 가중된다.

문제는 위의 경우는 단지 한 예에 지나지 않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데 있다. 진실을 보지 못하고 현상만을 보며 구업에 휘둘리고 있는 경우가 너무 흔하다.

부처님은 이런 경우의 대비책으로 〈핫타까 알라바까와 섭수의 경(A8.24)〉을 통해 "이 사람은 사랑스런 말로 섭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감각적 욕망과 화냄과 해코지가 없는 바른 사유에 기반한 나눔 정신이 제대로 된 말과 행동의 동인(動因)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무재칠시 가운데 사랑의 말, 칭찬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양보의 말, 부드러운 말 등을 의미하는 언시(言施)를 언급함으로써 말로써 베풀고 살아야 공동체가 평화롭게 살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구업의 시대를 정화할 바른 글쓰기와 좋은 댓글인 '선플' 달기와 바른 댓글인 '정플' 달기로 혼탁한 세상의 흐름을 바꾸어야 한다. 그래야 또 다른 구업 희생자의 출현을 막을 수 있다.



기자칼럼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아쉬움 남은 가야불교문화축제

사)가야불교문화진흥원은 출범과 함께 '제1회 가야불교문화축제'를 9월 14일 개최했다. '가야사 복원 사업'이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된 상황에서 김해 옛 가야 지역 스님들이 직접 나선 행사라 개최 전부터 관심이 높았다.

하지만 막상 행사가 시작되자 대중의 관심에 비해 "기획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가야불교를 널리 홍포하겠다는 것이 취지였지만 정작 '이 행사가 가야불교와 무슨 상관인가'라는 평가다. 일부에서는 '딴따라 문화'를 불교 행사로 포장했다는 말도 나온다.

프로그램은 '김해 출신 홍도야 우지마라 김영춘 가요제' '고무신 멀리 날리기 및 많이 받기' '108번뇌 마음깨기(사기접시 깨기)' '외국인 우리말 청소년·주부·가족·실버 노래자랑' 등이 마련됐다. 가야불교를 나타내기에는 역부족인 내용이다.

이뿐 만이 아니다. 행사장에서는 불법 부스 설치 문제로 몇몇 상인들의 부스가 강제철거를 당하는 일도 있었다.

12일부터 상인들은 대성동 고분 주변에 부스 설치를 준비했다. 그런데 이튿날인 13일, 김해시는 인력 100여명을 동원해 부스 70개를 철거했다. 고분군이 문화재 보호구역이라 애초 40개 설치만 허가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런데 상인들은 "주최 측에 정식으로 허가 받아 설치했고, 대가로 설치비도 냈는데 왜 철거하느냐"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상인들과 몸싸움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는 김해시와 주최 측간 소통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부스 초과 설치가 초래된 이유에 대해서도 각각 의견이 달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축제준비위 조유식 (사)행복나눔1%나눔재단 이사장은 "행사 소식을 미리 안 전문 사기꾼들이 공문서를 위조하고 상인을 모집했다"며 "형사 고발로 법적대응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상인에게 부스 신청을 받은 방인수 씨는 "행사 기획 전 부터 조유식 대표와 부스 설치와 관련해 의논하고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나 부스 설치가 40개 밖에 안 된다는 말을 (김해시로부터)행사 바로 직전 13일 날 들었다. 큰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할 것이라고 대치 중이다. (사)가야불교문화진흥원 이사장 인해 스님은 "그렇게 많은 부스가 설치될 것은 전혀 몰랐다"고 했다.

김해시 문화재관리과 관계자는 "법질서를 위해 집행했다. 현상변경허가신청서(문화재 구역 용도 변경 사용 허가서)에 맞게 행사가 치러져야 한다"고 밝혔다.

각각의 첨예한 입장 대립으로 강제 철거 문제는 법적 공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성동 고분군은 국가 사적 제341호로 지정된 문화재임에도 불구, 행사장에서 통돼지 바비큐가 먹거리로 판매되는 일도 발생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불교 문화 영역은 불자를 넘어 일반인을 대상으로 보여주는 불교의 얼굴이다. 문화로 불교는 이미지화 되어 기억에 남는다. 부정적인 이미지는 곧 포교와 연결되고, 불자인구 감소에 영향을 끼친다. 불교 문화 행사를 열 때는 불교를 대표한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또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다는 지극한 마음으로 철저히 검증해야할 것이다.

社說

청렴·투명 선거가 필요하다

조계종이 제35대 총무원장 선거 체제에 돌입했다. 9월 20일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이번 선거에는 설정·수불·혜총·원학 스님(기호 순) 4명이 출마했다.

후보 스님들의 면면을 본다면 누구 하나 빠지지 않는다. 설정 스님은 덕숭총림 수덕사를 이끌고 있는 수좌이면서 종회의장과 수덕사 주지를 역임하는 등 행정능력도 갖췄다. 수불 스님은 안국선원을 세우고 간화선 전파와 도심 포교에 힘을 쏟았다. 포교원장을 지낸 혜총 스님은 인망이 두터워 사부대중의 신뢰를 받고 있다. 원학 스님은 한국을 대표하는 남종화가면서도 종단 주요 소임을 맡았다.

이·사판을 두루 거친 쟁쟁한 스님들의 종책 선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쉽지는 않아 보인다. 벌써 여러 논란으로 인해 상호 후보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성명서들이 발표됐다.

한국불교는 현재 위기다. 불자는 300만 명이 감소해 1천만 불자의 시대는 끝났다. 출가자는 현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한 해 200명 출가도 어렵다. 사회의 탈종교화는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를 틈타 명상 수련을 내세운 대체 종교들이 사람들에게 파고들고 있다.

더 이상 '프레임'을 놓고 정쟁을 할 때가 아니다. 불교 발전을 위한 대안과 종책을 가진 후보들이 경쟁해 대중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소모적인 감정 싸움과 비방은 선거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또한, 더 이상 금권선거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한국불교는 백척간두에 서 있다. 조금만 실수하면 대중들의 외면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번 선거를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조계종 사노위 5주년에 부쳐

오체투지(五體投地)는 무릎을 꿇고 팔을 땅에 댄 다음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낮은 자세로 이땅의 모든 생명에 경외심을,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

사회 어려운 이웃들의 아픔을 보듬기 위해 거리에서 오체투지 해 온 스님들이 있다. 행위로서의 오체투지 뿐만이 아닌 승려라는 일종의 권위까지 투지한 스님들, 바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스님들이다.

2012년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하소연을 들은 스님들이 좌복을 박차고 나섰다. 모든 아픔이 있는 낮은 곳으로 향하겠다며 출범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5주년은 스님들이 진정한 불제자로 거듭난 5년 이었다.

2012년 스님 5명이 작은 책상에서 시작한 사회노동위는 그동안 부처님 가르침을 담은 메시지를 세상에 던져왔다. 쌍용차 희생자를 비롯해 해고노동자, 청소노동자, 세월호 희생자 등 사회 아픔이 있는 곳이 이들의 법당이고, 사찰이었다. 마치 자신의 몸을 던지는 오체투지와 같이 스님이라는 편견까지 깨부수고 피켓을 들고, 때로는 몸싸움도 마다하지 않으며 사회활동에 나섰다.

자본주의 사회는 필연적으로 힘있는 자와 없는 자, 혜택을 누리는 자와 차별받는 자가 나올 수 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의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는 것이 바로 불교의 존재 이유이며, 부처님께서 전하신 가르침의 현대적 발현이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5주년은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는 또 다른 시작일 것이다. 사회노동위의 활동은 이제부터다. 노동권 뿐만 아니라 인권, 성차별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차별에 나설 것이다. 차별과 편견으로 생성된 사회갈등이 사라지고, 모두가 화합하며 평등한 그날이 올 때까지 활발발한 활동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혜원 편집인 : 혜도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부산지사 : (051)405-9402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전북지사 : (063)910-8977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禪農敎團 우리불교 曹溪宗

종정 홍산 현불

종도모집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3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